

12 기획-후마니타스 우수강의 ⑥ 오현숙 ‘고전강독’



고전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이유는 작품에 내포된 현재성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오 현 숙

강사 · 후마니타스칼리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 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익숙한 이름이다. 굳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일상에서

그의 이름을 자주 듣는다. 사색과 우울에 잠긴 햄릿, 권력을 향한 욕망에 잠식당하는 맥베스, 질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는 오셀로의 이름뿐 아니라, 채무자의 살점을 요구하는 샤일록이나 은근한 언어로 진실에 구멍을 내는 이아고 같은 악당들도 결코 낯설지 않다.

고전의 운명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학생은 충분히 친숙하되 읽어본 적 없는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 ‘고전강독’ 수업에 들어온다. 하지만 학생들은 텍스트를 펼치는 순간 셰익스피어가 약 450년 전 런던의 대중들을 위해 쓴 드라마에 금방 몰입하게 된다. 그의 작품에는 현실감 있는 인물들, 흥미진진한 플롯, 다의적 언어와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몰입감의 근원은 무엇보다 그의 작품에 내포된 현재성이다. 작품 속에서 셰익스피어는 고전이라는 고리타분한 통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예컨대 『햄릿』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독백을 떠올려보자. 햄릿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왜 이 독백을 하며 손에 쥔 단도를 내려 봤을까? 햄릿의 단도가 칼날을

겨누는 곳은 어디였을까? 아버지를 독살한 숙부 클로디우스를 처단하고자 한 것일까? 아니면 칼날을 돌려 자신을 겨누는 것일까?

공교롭게도 우리는 『햄릿』을 펼치는 순간 처음부터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 질문은 “누구냐”이다. 하루가 교차하는 자정 무렵, 덴마크의 엘시노어 성에 보초를 교대하려는 병사들은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냐”를 외친다. 이 질문은 관객과 독자를 향해 물결치듯 반향을 일으키고, 검은 복장을 한 채 슬픔에 잠긴 햄릿 왕자의 질문으로 변형된다. 햄릿의 질문은 의문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버린 혼돈의 시간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이 혼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햄릿은 모호한 존재가 돼, 유령이 출몰하는 낯선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침잠하는 햄릿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독자는 ‘우리’ 자신의 질문을 발견한다. 요컨대 햄릿은 독자에 따라 끝없이 변신한다. 가령 햄릿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성적이고 사유하는 인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나 몽상가로

“

작품 속에서 셰익스피어는 고전이라는 고리타분한 통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

규정되기도 한다. 또한 햄릿은 자신이 짊어진 과제에 짓눌린 우울하고 분열된 존재로 평가받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문제”를 대면하는 모습에서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뚜렷이 분리된 주체적인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햄릿이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아를 규정하는 기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클로디우스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덴마크의 왕자임을 부정하기도 하며, 오페리의 연인임을 부정한다. 이런 점은 역설적으로 햄릿을 매우 현대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햄릿은 포스트모던한

인물이 되거나 심지어 여자로 변신한다. 햄릿은 독자가 거울에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인간의 원형이 된 것이다.

햄릿뿐 이겠는가. 악역을 맡은 인물들도 끊임없이 변신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보자. 샤일록은 법정에서 빛을 갉지 못한 안토니오의 살점을 요구한다.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살점 한 파운드는 비싸게 산 것이니, 내 것이고 내가 가져야겠소”. 집요하게 안토니오의 살을 베려는 샤일록은 냉혹하고 탐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유대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샤일록을 현대의 법정에 소환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배계층인 포샤가 불법적으로 변호사로 변장하고 자의적으로 법적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만연한 반유대주의를 드러내는 백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항변하는 샤일록에 더 공감할 수도 있다. 샤일록은 외친다. “그래, 나는 유대인이오. 유대인은 눈도 없소? 손도, 내장도, 몸뚱이도, 감각도, 감정도, 열정도 없단 말이오?... 우리도 찢리면 피가 나지 않소? 간질이면 웃지 않소? 독약을 먹이면 죽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학대해도 우리는 복수를 못 한단 말이오?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은데, 복수도 당신들을 닮지 말란 법이 어디 있소.”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뿐 아니라 언어는 독자가 바뀔 때마다 늘 다르게 변화해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오래된 케케묵은 문자들이 아니라 독자와 관객들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수수께끼가 된다. 따라서 ‘고전강독’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오래전 누군가가 해석한 낡은 질문과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해답이란 있을 수 없고, 설령 찾았다 해도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에서 건진 죽은 언어로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이다. 책갈피를 넘기면서,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와 만나고 대화한다. 그 대화 속에서 학생들은 셰익스피어를 새롭게 소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 누구도 정의하지 않은 햄릿이 되고, 때로는 이간질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이아고가 되고, 혹은 질투와 의심으로 망가져 가는 오셀로가 된다. 또한 마녀, 유령, 광대, 악당들이 내뿜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욕망과 가치를 뒤흔들며 기존의 질서와 고정된 의미들이 해체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고전강독’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셰익스피어를 직접 펼쳐서 그의 언어와 접촉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창조하길 바란다.